

했어.

편지를 이렇게 읽자마자 온 가족은 환희에 들떠, “비르지니가 왔어!”라고 외쳤네. 부인과 하인들 모두가 얼싸안았지. 라 투르 부인은 폴에게 말했다.

“아들, 가서 우리 이웃에게 비르지니가 왔다는 소식을 전하고 오거라.”

도맹그는 곧바로 순찰나무로 만든 횃불에 불을 붙였고, 폴과 함께 우리 집을 향해 발길을 옮겼다네.

아마 밤 10시였나 그랬을 거야. 등잔불을 끄고 막 잠자리에 들었을 즈음, 나는 오두막 울타리 너머로 숲 속에서 다가오는 불빛을 보았네. 곧이어 날 부르는 폴의 목소리를 들었지. 나는 자리에서 일어났네. 그런데 옷을 입자마자, 정신없이 흥분한 폴이 숨을 헐떡이며 내 목에 왈각 달려들더니, 이렇게 말했다.

“가요, 가요, 아저씨. 비르지니가 왔어요. 항구로 가요,동이 트면 배가 닻을 내릴 거예요.”

우리는 지체 없이 길을 나섰다네. 그런데 우리가 긴산의 숲을 건너, 벌써 왕굴나무 지구에서 항구로 향하는 길로 접어들었을 때, 누군가 우리 뒤에서 걸어오는 소리가 들렸네. 한 흑인 사내가 성큼성큼 걸어오고 있었어. 그가 우리를 따라잡자마자 나는 그에게 어디에서 오는 길인지, 그리고 어딜 가길래 그렇게 서두르는지 물었네. 그는 내게 답했네.

“저는 이 섬의 금모래라 불리는 동네에서 왔습니다. 충